

‘케빈 워시’ 연준의장 지명 여파… 韓 고강도 규제 ‘멈칫’

〈쿠팡 Inc 사외이사〉

쿠팡 NYSE 상장 주도 핵심참모
김범석 쿠팡의장과 하버드대 동문
與 ‘쿠팡 바로잡기 TF’ 출범 연기
한미 통상·규제 논쟁 민감성 변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차기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으로 케빈 워시 전 연준 이사를 지명하면서 국내 유통업계와 정치권까지 파장이 미치고 있다. 워시 지명자가 쿠팡 모회사인 쿠팡Inc 사외이사를 맡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측이 쿠팡 관련 압박 수위를 높이자 정치권 또한 규제 행보에서 한 발 물러서는 분위기다.

워시 지명자는 2019년부터 쿠팡Inc 사외이사로 재직 중이다. 임원진 8인 중 하나로 이사회 내 거버넌스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쿠팡이 뉴욕증권거래소(NYSE)에 상장하도록 주도한 핵심 참모로 꼽힌다. 김범석 쿠팡 의장과는 하버드대 동문이라는 학연으로도 얽혀 있다.

워시 지명자가 보유하고 있는 쿠팡 주



케빈 워시 쿠팡 사외이사가 차기 연방준비제도 의장으로 지명되며 쿠팡을 향한 국내 규제가 미뤄지고 있다.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만든 이미지

식은 약 47만 주(약130억원)에 달한다. 연준 규정에 따라 취임 전 이사직을 사임하고 주식을 처분해야 하지만, 지난 6년간 쿠팡 경영에 깊숙이 관여한 이력은 무시할 수 없다..

‘워시 지명 효과’는 즉각 나타났다. 당초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계기로

‘쿠팡 바로잡기 TF’를 출범하려던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TF 출범 시기를 잠정 연기했다. 2월로 예정된 쿠팡 국정조사 진행도 불투명하다. 쿠팡 사태가 자칫하면 한미 외교·통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한 결과다.

J.D. 밴스 미국 부통령이 우리 정부

고위 관계자에게 “쿠팡 등 미국 기술 기업에 불이익 조치를 중단하라”고 언급했다는 보도 이후 관세 인상까지 이어지자 미 연방하원 공화당 법사위원회는 소셜 미디어(SNS)를 통해 “쿠팡 같은 미국 기업을 부당하게 표적으로 삼으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말하기도 했다. 쿠팡 제재에 미국 정부가 사실상 보복 조치를 취한 셈이다.

반면 우리 정부는 미국 관세 인상이 쿠팡 압박과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지난달 2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현안질의에서 조현 외교부 장관은 한국산 제품 관세 인상과 관련 “쿠팡 사태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고 발언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도 2일 트럼프 행정부 관세 인상 압박이 쿠팡 제재에 대한 보복 성격이라는 분석에 “미국 정부 확인 의사와 다르다”며 반박했다. 김 총리는 이번 조치가 기존 관세 협상의 신속한 이행을 촉구하는 차원일 뿐, 쿠팡의 로비가 영향을 미쳤다는 해석은 사실과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학계에선 워시 지명자가 쿠팡 등 한미

통상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거라 분석하고 있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쿠팡의 대규모 정보 유출로 정부와 정치권의 압박이 거졌으나 워시 지명 이후 한미 통상 갈등 우려로 압박 수위가 낮아지는 기류가 감지된다”고 진단했다. 서 교수는 “워시의 영향력으로 인해 쿠팡이 한미 경제의 가교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생기면서, 온플랫폼 등 강도 높은 규제 추진이 완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황용식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 역시 “연준 의장이 개별 기업 이슈에 직접 개입할 수는 없기에 법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면서도 “한미 통상 및 규제 논쟁의 맥락에서 정치적 민감성을 높이는 변수로 작용할 것은 분명하다”고 분석했다. 이어 “쿠팡이 글로벌 네트워크와 투자자 신뢰 확보, 그리고 정책 전문성을 위해 워시를 사외이사로 영입했던 큰 그림이 결정적인 순간에 빛을 발하고 있는 셈”이라고 평가했다.

/손종욱 기자 handbell@metroseoul.co.kr

삼양라운드스퀘어, 임직원과 미래비전 공유

명동 신사옥 이전 ‘하우스-워밍 데이’
김정수 부회장, 직접 현장소통 나서
“新 지향점 정립하는 출발점 될 것”

삼양라운드스퀘어는 명동 신사옥 이전을 기념해 지난 30일 임직원 소통 행사인 ‘하우스-워밍 데이(Housewarming Day)’를 개최하고, 김정수 삼양라운드스퀘어 부회장이 임직원과 직접 소통하며 미래 비전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그룹의 시초가 마련된 명동으로의 복귀를 기념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사세 확장을 위해 노력해온 임직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 삼양라운드스퀘어는 ‘하우스-워밍 데이’ 행사를 단순한 사옥 이전 축하를 넘어 조직의 결속을 다지고 미래 비전을 임직원과 함께 공유하는 전략적 소통의 장으로 의미를 확장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정수 부회장이 직접 참석해 임직원들과 현장 소통에 나섰다. 김 부회장은 신사옥으로 출근하는 임직원들을 맞이하기 위해 이른 오전부터 로비에서 대기하며, 새 터전에서의 시작을 기념하는 의미로 시루떡과 커피



명동 신사옥에서 열린 ‘하우스-워밍 데이’ 행사에서 임직원들에게 간식을 전달하고 있는 김정수 삼양라운드스퀘어 부회장.

를 전달했다. 김 부회장은 직원 한 명 한 명에게 사옥 이전 축하 인사와 함께 그간의 노고에 대한 감사를 전하며 격의 없는 스킨십 경영을 펼쳤다.

환영 행사를 마친 뒤에는 약 1시간 동안 임원, 팀장 이상 직책자 110여 명을 대상으로 타운홀 미팅을 진행했다. 김 부회장은 이 자리에서 명동 신사옥 이전을 삼양라운드스퀘어의 미래 비전을 정립하는 전략적 전환점으로 규정하며 그룹의 새로운 지향점과 구체적인 실행 기준을 공유했다.

김 부회장은 타운홀 미팅을 통해 “명동 신사옥은 단순히 업무공간을 옮긴 것이 아니라 세계와 직접 소통하는 무대이

자 그룹의 새로운 지향점을 정립하는 출발점이 될 공간”이라며 “우리의 핵심 가치인 ‘Food for Thought’를 그룹의 최상위 경영 비전으로 삼고,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삼양만의 새로운 사고방식과 기준을 확립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비전 실현을 위한 세 가지 기준으로 ▲조직의 가치와 기준을 높이는 리더십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프로세스 ▲데이터 기반의 객관적 의사결정 체계를 제시하며 명동 신사옥을 그룹의 미래 비전을 완성할 전략적 기지로 구축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비전 발표 이후에는 임직원들의 질문에 김 부회장이 직접 답하는 Q&A 세션이 이어졌다. 경영 현안과 차세대 성장 전략, 조직 문화 혁신, 리더십 방향, 신사옥 업무 환경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심도 있고 솔직한 대화가 오갔다.

삼양라운드스퀘어 관계자는 “명동 신사옥 이전이라는 의미 있는 시점에 임직원들과 감사의 마음을 나누고, 새로운 도약을 위한 결속을 다지고자 이번 행사를 기획했다”라고 밝혔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롯데마트, 설 맞이 160여종 주류 선물세트

‘가성비’ 2병 묶음 와인세트부터
1억3900만원 럭셔리 위스키까지

롯데마트가 1만원대 초저가 와인부터 1억원이 넘는 초고가위스키까지 다채로운 주류 선물세트를 앞세워 설 대목 잡기에 나선다. 롯데마트는 이번 설 명절을 맞아 총 160여 종의 주류 선물세트를 선보인다고 2일 밝혔다.

우선 고물가 시대 가성비를 중시하는

고객을 위해 2병 묶음 와인 세트 구색을 늘렸다. 실제 사전예약 기간 와인 판매량 상위권을 휩쓴 ‘프랑스 론 와인 2종’ 등 3~4만 원대 상품이 주력이다.

받는 사람의 취향을 고려해 직접 상품을 고를 수 있는 ‘DIY 와인 선물세트’도 인기다. 고객이 원하는 와인을 선택하면 전용 케이스에 담아주는 방식인데, 전체 와인 선물세트 매출의 4분의 1을 차지할 정도로 반응이 좋다.

2026년 병오년(붉은 말의 해)을 맞아 기획한 한정판 상품도 눈길을 끈다. 롯데마트는 ‘글렌알라키 13년 말피 에디션’, ‘조니워커 블루 말피 에디션’ 등 소장 가치를 높인 피 마케팅 상품 물량을 지난해보다 25% 가량 늘렸다.

주류 전문 매장 보틀병커에서는 ‘조력서리’ 수요를 정조준한다. 역대 최고가인 1억3900만원짜리 위스키 ‘백켈란 피터 블레이크 다운 투 워크’를 비롯해 3880만원대 ‘달모어 45년’ 등을 선보이며 하이엔드 시장을 공략한다.

/손종욱 기자

CJ제일제당, ‘콩 100%’ 원물 간식 선택

병아리콩·검은콩 활용한 ‘맛콩’ 2종

CJ제일제당이 웰니스 트렌드 확산에 맞춰 원물간식 라인업 확대에 나섰다.

CJ제일제당은 ‘바로 먹는 100% 콩 간식’ 신제품 ‘맛콩’ 2종(사진)을 출시했다고 2일 밝혔다.

식물성 단백질 원물인 콩을 그대로 활용한 ‘맛콩’은 ‘병아리콩’과 ‘검은콩’ 두 가지로 선보였다. 최적의 침지(浸漬) 조건 설계로 촉촉한 형태와 식감을 구현하고, 콩의 담백하고 고소한 맛을 극대화했다. 한 봉지 당 단백질 함량은 병아리콩 제품 4g, 검은콩 제품 8g이다.

병아리콩과 검은콩은 최근 건강식단의 온라인 주요 연관 검색어에 ‘고단백’ 키워드와 함께 언급되며 건강을 생각하는 이들에게 각광받고 있다. 특히 30~40대 직장인과 식단관리 중인 소비자들 중



심으로 ‘건강한 단백질 간식’이라는 긍정적 후기가 쌓여가고 있다.

CJ제일제당 공식몰 CJ더마켓과 GS25, CU 등 전국 편의점에서 판매하고 있고, 이달 4일부터는 CJ더마켓에서 기획전을 진행, 보다 합리적인 가격으로 만나볼 수 있다.

건강식단 트렌드 속에서 원물간식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어 CJ제일제당은 ‘맛콩’이 원물간식의 원조이자 스테디셀러인 ‘맛밤’ 매출의 50% 수준까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원선 기자

우리와, ‘케이펫페어 대전’서 제조공정 체험

오는 6일~8일 체험부스 운영

K-펫푸드 전문기업 우리와주식회사(이하 우리와)가 오는 6일부터 8일까지 대전컨벤션센터(DCC) 제2전시장에서 열리는 ‘2026 케이펫페어 대전(2026 K-PET FAIR DAEJEON)’에 참가한다.

‘2026 케이펫페어 대전’은 약 200여개 업체, 320개 부스 규모로 열리는 충청권 대표 반려동물 산업 박람회다. 우리와는 이번 행사를 통해 충북 음성에 위치한 ‘우리와 펫푸드 키친’을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대전 지역 보호자들에게 브랜드 철학과 제조 과정을 생생하게 전달할 계획이다.

우리와는 지난해 11월 열린 ‘2025 메가주 일산’에서 관람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던 ‘우리와 펫푸드 키친’ 체험형 부

스 콘셉트를 이번 행사에도 재현한다. 전시 부스는 ‘우리와 펫푸드 키친’의 실제 동선을 반영해 ▲원재료 입고 및 선별을 담당하는 레드존 ▲배합·가공 등 핵심 제조 공정이 이뤄지는 옐로우존 ▲완제품 포장과 최종 품질 검증을 진행하는 블루존 등 3개 존으로 구성된다. 관람객은 실제 생산 공정과 동일한 흐름에 따라 펫푸드가 만들어지는 전 과정을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현장에서는 ANF, 이즈칸, 웰츠, 브이오엠 알엑스, 프로베스트 등 우리와의 주요 브랜드 제품을 소개하며, 제품 샘플 증정과 함께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이리온몰’ 알림 신청 이벤트, 브이오엠알엑스수의사영양학상담코너 등 다양한 참여형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신원선 기자